

페터 바이스의 『수사』와 독일의 기억문화*

탁 선 미 (한양대)

국문요약

페터 바이스의 『수사』는 나치의 유럽유대인 학살을 최초로 극미학적 방식을 통해 사회적 기억으로 환수한 사례였다. 1963-1965년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재판이 열어젖힌 가해자 대 피해자 간의 집단적 기억투쟁의 공론장을 확장한 이 극은 전후 이십여 년 간 독일사회를 지배한 위선적 평화를 종식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더 나아가 독일인들이 비인격적 관료체제가 수행한 착취적 생명정치의 ‘자발적 집행자’가 되게 만든 사회심리적 조건, 즉 국가권위와 규율에 대한 복종을 최상의 규범으로 받들며 개인의 윤리적 성찰과 자유의지를 기꺼이 포기하는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독일인들의 집단인식에 대한 통찰을 던져주었다. 바이스가 프리모 레비, 장 아메리, 프리츠 바우어, 라울 힐베르크, 한나 아렌트 등과 함께 홀로코스트에 대해 보편주의 윤리의 관점을 대변하고 그 착취적 생명정치의 비인간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독일 문학사의 성과이다. 21세기에 이르러 가해자 트라우마가 독일인들의 초세대적 윤리적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홀로코스트가 독일을 넘어 유럽 공동의 집단기억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수사』와 같은 선구적 기억투쟁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양한 홀로코스트 담론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수사』의 고유한 문제의식이 어떻게 독일의 새로운 기억문화와 역사인식을 선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페터 바이스, 『수사』,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과거청산

I. 들어가는 말

1965년 2월 18일 페터 바이스의 『수사 Die Ermittlung』 원고를 일독한 주어캄프 출판사 편집자 카를하인츠 브라운은 작가에게 보낸 편지에서 ‘완전히 진을 빼는’ 이 텍스트를 읽은 자신의 상태를 ‘않는 krank’¹⁾ 것으로 표현하였다. 초연

* 이 논문은 한양대학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6년도). 이 논문의 일부내용은 2016 한국독어독문학회 겨울학술대회(2016.12.3)에서 발표되었음.

1) 이 편지는 베를린 Peter Weiss Archiv (PWA)에 소장되어 있음. Karlheinz Braun an Peter Weiss

무대에 대한 반응도 비슷하였다. 1965년 10월 19일 베를린 자유민중극장에서 피스카토르 연출의 공연이 끝나자, “홀은 조용했다. 박수는 없었다. 커튼은 내려진 채였다. 배우들은 다시 무대에 오르는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관객들은 아무 말 없이 극장을 빠져나갔다”(Schlott 2015). 이 극작품을 경험한 최초 독자와 관객들이 보여준 이런 충격과 감정의 혼란이 사오십년이 지난 현재의 관객들에게서도 목도되는 것은 흥미롭다. 예를 들면 1998년 시민참여 워크숍 형식의 「베를린의 수사 Berliner Ermittlung」를 연출한 게르츠 Gerz부부는 그 모집 공고문에서 “최고의 수치를 알게 하는 역사적 극”(Weiler 2005)이라고 언급한다. 2009년 『수사』를 5명의 배우가 뉘른베르크 구 나치전당대회장의 회랑을 이동하는 해프닝의 형식으로 연출한 매들러 Mädler의 공연에서 “한 여성 관객은 구토를 느끼며 공연장을 떠났으며, 다른 사람들은 동요, 절망, 불쾌를 드러”(Kasch 2009)내었다고 비평은 보고한다. 2015년 알텐베르크 법원을 무대로 우연히 법정기록을 발견한 미화원 팀이 기록철을 읽어나가는 낭독드라마 형식으로 『수사』 공연을 준비한 신세대 연출가 크레신은 자신의 세대가 홀로코스트를 다룬 시청각 자료에 이미 충분히 노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언어에 집중해야 하는 바이스 극의 경우처럼 “그렇게 마음에 다가온 적은 없었음”(Kressin 2015, 85)을 증언한다. 크레신은 『수사』의 증인들과 피고인들의 발언들을 낭독 장면으로 압축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놀랐다”(Kressin 2015, 86)고 고백한다. 시대의 이슈를 직접 주제화하는 기록극으로 분류되는 『수사』의 이 특별한 장기적인 윤리적, 영향미학적 효과는 당대에 마찬가지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유사한 주제의 또 다른 기록극, 예를 들면 호흐후트 Rolf Hochhuth의 『대리인 Der Stellvertreter』과 비교하여도 매우 특이하다.²⁾

『수사』는 1963년 12월에서 1965년 8월까지 이어진 제 1차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재판에서 진술된 생존자들 및 피고인들, 검사와 변호인들의 증언을 압축하고 선별해 11개의 노래로 재구성한 일종의 낭독드라마이다.³⁾ 배우의 상호작

18.2.1965 (PWA). Zit. nach: Gerlach 2005, 163.

2) 호흐후트는 그의 『대리인』(1962)에서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카톨릭 교회와 교황 피우스 XII가 홀로코스트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음을 주장한다. 피스카토르가 연출한 이 극에 대해 당시 바티칸 교회는 “뻔뻔한 거짓 얘기”(Vogt 2016, 72)라고 비난하였으나, 찬반을 둘러싼 역사학자 및 여론의 논쟁이 이어졌다. 호흐후트의 이 극은 당시 과거청산의 문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였으나, 집단학살이 벌어진 과거 시점에서 극을 전개시키면서 수용소의 학살소각을 직접 무대 위에서 형상화하려고 시도한 점은 극미학적 전략의 실패로 평가받는다.

3) 잘로흐 Erika Salloch의 분석에 따르면, “재판이나 다른 기록물에서 바로 그런 형식으로 들어있지

용이나 장면의 연출을 최소화한 채, 판사와 검사의 질문, 증인과 피고인의 대답과 반박, 피고를 옹호하는 변호인의 발언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 드라마는 포스트드라마 작품 유형을 선취한다고 할 수 있다. 인물들의 진술을 조합하는 원칙은 아우슈비츠 학살수용소의 공간 구조이다. 수감자들이 살아있는 인간으로 도착한 기차 승강장에서 시작해 죽음의 선별과정을 통과해 최종적으로 연기로 흠어질 소각로까지 이 인간대량학살기계를 움직이는 공간행정조직의 세부 동선을 따라 증인들의 목소리가 관객을 인도한다. 이 극의 초연이 야기한 충격과 혼란만큼이나, 작품에 대한 연구 역시 상당기간 동안 기록극의 진실성과 작가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비난, 유대인문제를 수단화 또는 일반적 학살범죄로 중립화했다는 논란으로 혼란스러웠다.⁴⁾ 따라서 이 극이 던지는 윤리적 도전, 즉 앞서 언급한 저 충격과 불쾌, 절망감과 수치라는 영향미학적 감정의 정신적 본질을 해석하는 데 집중하지 못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연구한 정신의학자 레오 아이팅거는 “전쟁과 피해자는 공동체가 잊고자 하는 무엇”이며, 망각은 “고통이 담긴 불쾌한 모든 것들에 드리워”(허먼 2007, 26)진 베일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극이 촉발하는 저 영향미학적 감정은 오랜 망각의 베일 밑에 놓였던 과거의 절대 악을 사실로 직면한 국외자들의 불쾌와 충격일 수도 있고, 자신 또는 자신의 이웃과 가족이 저 절대 악의 일부였던 독일인들의 자기혐오 효과이기도 할 것이다. 독일의 비텐-헤르데케 Witten-Herdecke 대학의 교수이자 역사학자인 뤼젠 Jörn Rüsen은 전후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홀로코스트 기억이 단계별로 그리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불가결한 요소로서 독일인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해 왔다고 말한다(뤼젠 2003, 159 이하). 우선 전후 이십여 년 간 독일인들의 기억에서 홀로코스트는 침묵과 은폐의 대상이었는데, 독일인들은 소수의 고위 나치들을 악마화하고 타자화 함으로써 그 기억을 전후 서독사회의 공동체 밖으로 치외법권화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후 독일의 민주화는 역설적이게

않는 말들을 한”(Salloch 1972, 103) 유일한 인물은 작가의 극 중 대변인이라고 볼 수 있는 증인 3이다. 증인 1과 증인 2가 수용소 관련 전치산업체의 근무자들이기에, 증인 3은 실질적으로 희생자 집단을 첫 번째로 대변하는 인물이다.

4) 바이스는 「분단된 세계에서 작가의 10계명 10 Arbeitspunkte eines Autors in der geteilten Welt」(1965) 등으로 정치적 참여의지를 적극 피력하는데, 이것은 『수사』에 대한 비난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비난은 1990년대까지도 이어지는데, 대표적인 예가 제임스 영이었다. 그는 바이스의 극을 구성된 기억의 예로 규정하며 바이스가 유대인을 적극적으로 피해자집단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정치수감자와 유대인수감자를 뒤섞었고, 홀로코스트를 자본주의와 등치시켰다고 비난하였다(Young 1992). 이에 대한 제반박은 쇼몽(Chaumont 1994)을 참조할 것.

도 다수 독일인들이 이처럼 홀로코스트 범죄를 악마화된 소수의 행위로 영외화함으로써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68세대로 대변되는 보편주의 윤리와 비판의 시대에는 아들세대가 가해자인 아버지세대를 미래의 독일로부터 확실히 배제시킴으로써 독일인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였다고 뤼젠은 말한다. 그러나 이 보편적 윤리를 통한 홀로코스트의 단죄는 서구의 보편적 문명을 복원시킴으로써 독일이 과거와 결별할 수 있다는 함의를 내포한다고 뤼젠은 지적한다. 하지만 미래의 정체성이 과거에 대한 역사의식과 매개됨으로써만 형성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위 독일인의 ‘특수한 길’ 문제는 도덕성을 회복한 미래의 독일사회에서도 끝나지 않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2003년 시점에 뤼젠이 단초로만 확인하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계보학적 역사화는 바로 과거로 타자화되었던 아버지 가해자 세대를 다시 현재의 우리와 연관시키는 새로운 기억방식이라고 그는 말한다. 즉, “홀로코스트를 저지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다른 사람들’은 독일 역사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그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근본적으로 구분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독일인들이었다. 이제 이런 중재 작업을 통해 저명한 역사가들은 가해자들에 대해 ‘우리’라고 말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뤼젠 2003, 167). 이 논문은 페터 바이스의 『수사』가 어떻게 20여 년 간 제 3제국의 범죄를 덮고 있던 망각의 베일을 걷어내고 홀로코스트를 피해자 관점에서 보편적 윤리에 따라 비판적으로 반추했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우리들의 죄’라는 새로운 역사의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는지를 밝히려는 목표를 갖는다. 『수사』를 독일사회의 과거청산을 위한 특별한 기여로 해석하려는 연구는 쾰너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⁵⁾ 국내독문학 연구는 『수사』가 기록극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진실을 고발하고 정치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참여문학의 관점에서 이 극을 주로 다루어 왔다(김희열 1994; 정향균 2000; 이상복 2009). 최근 독일에서의 새로운 연구는 이 극을 작가의 전시기를 관통하는 유대적 정체성과 연관시키거나(Takada 2016), 보편적인 체노사이드 트라우마 기억의 문제와 연결시키기도(Hoffmann 2016) 한다. 이 논문은 바이스의 『수사』를 독일기억문화의 변화과정과 연관해서 이해하려는 기존연구의 관심을 공유하면서, 이 극이 뤼젠이 말하는 제 2단계와 제 3단계의 홀로코스트 기억모델을 모두 선취하는 특징을

5) 쾰너는 『수사』의 의미를 공산주의적 신념으로의 개종(Beck), 파시즘이론과의 동격 비교(Krause), 초현실주의적 잔혹성 미학의 확장(Bohrer)으로 설명하는 기존의 대표적 연구들에 거리를 취한다 (Vgl. Söllner 1988, 170).

갖는다는 것, 동시에 기억의 윤리를 통해서 참여의 정신을 도출하는 선구적 시도였다는 것을 다양한 홀로코스트이론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다.

II. 가해자 대 피해자 - 소통기억을 둘러싼 포스트홀로코스트 투쟁

1965년 10월 19일 ‘11개의 노래로 구성된 오라토리오’의 형식으로 동서독 14개 도시와 해외 2개 도시⁶⁾에서 동시에 무대에 오른 『수사』는 “아마도 연극사에서 가장 스펙타클한 초연”(Vormweg 1981, 87)이었고 하나의 미디어 사건이었다. 제 1차 프랑크푸르트재판에 등장했던 약 360백여 명⁷⁾ 증인의 목소리들을 집요한 언어가 엮어내는 죽음의 무도(舞蹈)로 재탄생시킨 『수사』가 전무후무한 미디어 사건이 된 것은 16개 도시 동시공연이라는 파격적 형식 못지않게 프랑크푸르트재판 자체의 충격 덕분이었다. 이 재판은 전후독일역사의 이정표로 평가받는데, 그것은 1965년 8월 19일 내려진 법정의 사법적 단죄가 적합했기 때문이라기보다 당시 언론매체가 재판 현장을 보도하고, 그 보도에 다시 독일 내외 역사가들의 설명과 평가가 더해지면서 전후 독일사회에서 처음으로 과거의 국가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공개적 토론의 장이 형성되었기⁸⁾ 때문이었다(Vgl. Vogt 2016, 74). 1965년 10월 바이스의 『수사』는 프랑크푸르트재판을 둘러싼 이처럼 각성된 여론의 연장선에서 열렬히 주목을 받았고, 스펙타클한 16개 도시 동시 공연으로 그 논쟁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했던 것이다. 프랑크푸르트재판의 기소를 총괄한 검사 바우어 Fritz Bauer는 “형사소송과 언론보도, 그리고 극작품을 통한 시대사

6) 피스카토르 연출의 서베를린 공연 외에 헬레네 바이겔과 동독 유명배우들이 총 출동한 포츠담 공연, 또 알텐베르크, 코트부스, 드레스덴, 에르푸르트, 에센, 게라, 쾰른, 라이프치히, 로이나, 뮌헨, 노이슈트레르리츠, 로스토크에서 동시 공연이 성사되었다. 해외에서는 스톡홀름과 런던에서 공연이 있었다(Vgl. Braun 2016, 59f.; Schlott 2015).

7) 관련 연구에 따르면, 1965년 제 1차 프랑크푸르트재판은 판결까지 총 20개월 중 183일 간 공판이 이어졌고, 이 기간 중에 359명의 증인이 발언하였다. 고증에 의거하면 이 중 아우슈비츠 생존자는 211명인데, 구체적으로 유대인이 90명, 신티 로마 집시가 4명, 정치범이 104명, 그 외 범죄로 인한 포로가 13명이었다. 증인 중 유대인이 적은 이유는 이들은 수용소 내 직무담당, 즉 기능포로가 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바로 가스실로 보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Vgl. Steitz 2017, 81).

8) 1947년 뉘른베르크전범재판은 신탁통치권을 가진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1961년 아히이 만재판은 이스라엘 사법부에 의해 진행되었다. 아우슈비츠수용소 소장 회스 Rudolf Höß의 사형은 1947년 폴란드 사법부에 의해 집행되었다. 프랑크푸르트재판은 전후 독일이 처음으로 직접 제 3제국의 범죄를 사법적으로 단죄한 재판이었다.

연구에서의 협력”을 적극 환영하며 “아우슈비츠-재판관은 단죄하고, 아우슈비츠-시인은 교육을 해야 한다 Der Auschwitz-Richter züchtigt, der Auschwitz-Dichter sollte erziehen”(Vogt 2016, 78)는 역할분담론을 내세웠다.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재판이 환기시킨 과거의 집단적 죄에 대한 독일인들의 자각과 비판적 성찰은 경제중심주의적인 전후 독일사회의 자기이해가 결정적으로 수정되는 출발점이었다. 경제부흥을 이루었으나 베트남전쟁을 불사하는 냉전시기의 권위적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세대의 비판과 저항에서 폭발한 68혁명이 독일에서 특별히 더 격렬했던 것은, 나치과거에 침묵하는 아버지세대에 대한 아들세대의 도덕적 분노와 죄의식의 트라우마가 더해졌기 때문이었다.

알려져 있다시피 나치 범죄에 대한 재판은 프랑크푸르트재판이 처음이 아니었다. 종전 후 연합국은 국제군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를 설립해 전쟁을 일으킨 나치 정권과 군부의 고위직 주요전범 24명을 기소하였다.⁹⁾ 그런데 제 1차 뉘른베르크재판이 전체적으로 환영을 받은 것에 비해, 미국군사법정의 주도로 제 3제국의 고위직 인사 177명을 기소한 12 차례의 후속 재판에 대한 독일인들의 반향은 사뭇 달랐다. 대중매체에는 ‘승자의 재판 Siegerjustiz’이라는 원망이 나돌았고, 과거 나치국가체제하에 저질러진 행위의 법률적 청산에 대한 독일인들의 불만이 노골화되기 시작했다.¹⁰⁾ 1949년 양 독일에서 개별 정부가 수립되고, 이후 동서냉전과 한국전쟁의 발발로 서독의 재무장 필요가 대두되자, 자민당 출신의 초대법무장관인 델러 Thomas Dehler는 나치범죄로 구금된 독일인들을 사면하라는 요구를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미국 고등병참관 맥로이 John J. McCloy가 사형수들을 사면하여 형기를 단축하였다. 1950-51년 플리크 Friedrich Flick, 폰 바이체커 Ernst von Weizsäcker, 크롭 Alfred Krupp이 가석방되자,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이 사법적 조치를 끝으로 나치의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결산이 종료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뉘른베르크재판에 대한 1950년대 독

9) 기소의 근거법률은 연합국의 통제위원회법 Kontrollratgesetz Nr.10(1945.12.20.)이었다. 제 1차 뉘른베르크재판(1945.10.1-1946.10.18)에서는 제국총사령관 괴링, 육군참모총장 카이텔을 포함해 나치당 대변인 루돌프 헤스, 외무장관 리벤트로프 등 24명이 기소되었고, 최종적으로 자살과 질병으로 기소 중지된 2명을 제외하고 12명은 사형을, 7명은 중신형 등의 징역형을, 3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wikipedia 독일어판 온라인 사전 〈NS-Prozesse〉 항목 참조).

10) 나치범죄는 연루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판결을 받았다.(Hauptschuldige / Belastete / Minderbelastete / Mitläufer / Nichtbelastete) 혐의를 받은 자가 직접 자신의 연루정도를 증명해야 하는 청원재판 Spruchkammer에 대한 불만이 특히 컸다. 때로 자신의 죄를 세탁하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판결증명서를 일명 페르실 증서 Persilschein라고도 했다.

일인들의 이러한 반응은 그들이 제 3제국의 과거를 여전히 승전과 패전으로 나누는 국가 간 전쟁이라는 틀과 그에 동반되는 영웅주의 가치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전쟁 중 자행된 ‘반인륜 범죄 crime against humanity’를 단죄한다고 표방했지만, 뉘른베르크법정은 실제로는 이웃 국가와 연합국에 대해 전쟁을 결정하거나 그 수행에 책임이 있는 당과 군의 권력자들을 기소했으며, 정치범문제나 유럽유대인의 집단학살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1961년 예루살렘의 재판에서 아이히만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가적 행위”(아렌트 2006, 342)를 수행했다고 강변한다. 그는 지난 전쟁을 “다른 맥락에서는 ‘독일제국에 강요된 전쟁’이라고 여전히 부르며” 차라리 자신의 공개처형을 원하는 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난 전쟁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가 한 일들에 대해 결백”(아렌트 2006, 337)한 독일 청년세대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수사』의 피고인 6번 수용소의사 루카스 역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비도덕적 명령이 꺼려지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위협에 빠뜨리는 식으로 행동하는 건 조심해야한다는 주교와 법률가의 충고를 들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전쟁 중이고, 전쟁 중에는 여러 가지가 벌어질 수 있다는”(279)¹¹⁾ 조언자들의 견해를 변명으로 내세운다. 유럽유대인의 강제이주와 수용소집단학살이 전쟁 중인 국가의 행위에 속한다는 주장은 집단학살을 둘러싼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체성 및 그 관계의 진실을 거부하려는 가해자 세대의 자기방어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학살이 직접적인 전쟁 수행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제 3제국 국가의 고유하고 전무후무한 인종주의 범죄였다는 사실, 따라서 전 유럽의 유대인에 대해 불과 45년의 기간 내에 인종소속성을 규정하고, 선별하고, 시민권을 제한하고, 재산권을 박탈하고, 집단적으로 격리하고, 이주시키고, 최종적으로 다시 학살수용소로 집결시키고, 6백만 명을 집단학살한 국가의 전체 행정조치에 참여한 모든 독일인들이 그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거부는 쾰너가 ‘망각의 망각 Verdrängung der Verdrängung’으로 지적하고 싶었던 독일인들의 집단적 상태였다. 이러한 인식거부는 독일인들 사이에서 ‘배반당한 전쟁’이라는 사적인 영웅적 역사쓰기가 유행할 수 있었던 인지심리학적 전제조건이기도

11) 『수사』의 본문인용은 독일어본(Weiss 1976)을 기준으로 괄호 안에 숫자로 표기한다. 한국어 번역본으로는 황성근 역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한국문화사 2002)가 있다.

했다. 68세대 작가인 우베 팀이 1942년 18세의 나이로 무장친위대원으로 자원해 전사한 자신의 형의 일기와 편지를 토대로 재구성한 가족사 「내 형의 예에서 Am Beispiel meines Bruders」(2003)는 패전한 부모세대의 이러한 사적 역사쓰기를 잘 보여준다.

아버지는 애도를 허용하지 않았다. 분노할 뿐이었다. 그에게 용기, 의무, 전통은 확고한 것이었기에, 분노는 오로지 군대의 아마추어들, 임무를 회피하는 사람들, 배반자들을 향했다. 그것이 아버지 동지들과의 대화 소재였다. 그들은 저녁이면 모여 들어, 코냑과 커피를 마시며 전쟁의 진행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왜 전쟁에 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았다. 그들은 다시 한 번 전투를 하면서, 명령을 수정해 보고, 무능한 장군들을 내쫓았다. 군사 명령권을 히틀러에게서 빼앗았다. 오늘날도 대체 상상이 가지 않지만, 이 세대의 저녁을 채우는 주제는 이런 것이었다(Timm 2003, 78).

전후독일 민간인사회에서 만연했던 이러한 사적 영웅적 역사쓰기는 실제로는 ‘은폐기억 Deckerinnerung’으로 기능했는데, 간혹 과거의 파괴와 학살이 부정할 수 없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침묵과 외면의 심리학이 발휘되었다. 바이에른 알고이 출신으로 1944년생인 W.G. 제발트는 “16세나 17세까지 (...) 1945년 이전의 역사에 대해 사실상 그 무엇도 들은 바가 없었다”. 노동자 출신이면서 1930년대 군인으로서 신분상승을 한 아버지를 둔, 소위 “침묵의 음모”(Jaggi 2001a)가 가장 분명했던 사회 계층에 속한 제발트는 17세 때 학교에서 느닷없이, 교사의 아무런 보충설명 없이 노출되었던 벨젠수용소 해방 관련 기록영화의 의미를 프랑크푸르트재판을 통해 비로소 이해했다고 말하고 있다.

강제수용소의 존재와 그곳에서 벌어진 집단학살의 기억을 지움으로써 마치 그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과거를 왜곡하려는 것은 사실 나치정권의 일관된 기억정치의 일부였다. 1942년 반제회의에서 유대인문제의 최종해결을 결의한 시점부터 관련된 모든 서신에는 “절대비밀유지”, “침묵, 절대보도금지” 명령이 결부되어 있었다(Didi-Huberman 2007, 36f.). 이 침묵의 규율은 수용소에 감금된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되었는데, 『수사』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가진 희생자 릴리 토폴러는 수용소 동료에게 자신이 “본 것들, 그리고 아는 것들”(344)을 전한 편지가 발각되면서 총살당한다. 최종해결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물리적 절멸을 넘어서 이 절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소멸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치

의 제 3제국은 미래의 영광스런 승리자로 남기 위해서 이 학살에 대한 기억과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미래의 기억의 터가 될 모든 흔적을 지우는 방법 중 하나는 희생자들 사체의 소각이었다. 트레블링카 강제수용소에서 1943년 봄에서 여름까지 진행된 1005작전은 이미 매장된 희생자들의 사체들을 다시 파내 노상에서 소각한 후 재와 가루로 만든 후 같은 장소에 묻는 업기적 작전이었다. 살해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목적이었던 이 사체 소각을 명령한 것은 히틀러 Himmler였다(Didi-Huberman 2007, 38f.). 1944년에 들어서면서 패전이 가시화되자, 사람들은 “재소자기록, 카드함, 사망자증명서, 고소장들 그리고 다른 서류들을 산더미처럼 차에 실어서 소각로로 날랐다. 그것들은 엄격한 감독 아래 소각로에서 불살라졌다”(Müller 1979, 264. Zit. nach: Didi-Huberman 2007, 40). 유대인 학살과 관련해 ‘누가 아르메니아인들을 기억하느냐?’는 히틀러의 방어적 질문은 기억을 지배하는 자가 역사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유대인 역사가 시퍼 Itzhak Schipper는 마이다니크 강제수용소로 끌려가기 직전에 “보통 승자가 역사를 쓰느니” 만큼, 나치가 승리한다면 “마치 우리가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세계의 기억에서 우리를 완전히 지우기로”(Didi-Huberman 2007, 40f.) 결정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전후 독일사회에서도 한동안 유효하였다.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비첸탈 Simon Wiesenthal은 수용소 친위대원들이 수감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면서 즐거워했다고 그의 『살인자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Doch die Mörder leben』(1967)에서 보고한다. 프리모 레비는 그의 마지막 저서에서 이 내용을 다시 언급한다.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나든지 간에, 너희와의 전쟁은 우리가 이긴 거야. 너희 중 아무도 살아남아 증언하지 못할 테니까. 혹시 누군가 살아나간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그를 믿어주지 않을걸. 아마 의심도 일고 토론도 붙고 역사가들의 연구도 있을 테지만, 확실한 건 아무 것도 없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그 증거들을 너희와 함께 없애 버릴 테니까. 그리고 설령 몇 가지 증거가 남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너희 중 누군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너희가 얘기하는 사실들이 믿기에는 너무도 끔찍하다고 할 거야. 연합군의 과장된 선전이라고 할 거고, 모든 것을 부인하는 우리를 믿겠지. 너희가 아니라. 라거(강제수용소)의 역사, 그것을 쓰는 것은 바로 우리가 될 거야(레비 2014, 9이하).

바이스의 『수사』가 전하는 프랑크푸르트재판의 피고인들은 실제로 증인 기억

의 객관성을 의심하고,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고, 사실을 외면하기 위한 언어적 수사를 자기 마취를 하듯이 반복해서 사용한다.

- 피고인 3: 증인이 나를 분명 / 다른 사람과 혼동하는 겁니다. / 나는 승강장에서 사람들을 결코 / 분류한 적이 없습니다(268)
- 피고인 13: (...) 그녀(어머니)는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 그녀가 말했죠 / 인간은 불타버리지 않아 / 육고기는 불태워버릴 수 없다니까(274)
- 피고인 13: 그건 무고입니다 / 나는 도대체 특수곤봉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275)
- 피고인 2: 그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320)
- 피고인 2: (...) / 나는 그녀의 총살과 /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344)
- 피고인 2: 나는 아이를 총살한 적이 없어요 / 도대체 누구를 총살한 적이 없어요 (379)
- 피고인 14: 여기서 나에게 비난하는 / 특정한 모든 것을 나는 부정합니다 / 나는 어떤 경우도 / 살해에 가담한 적이 없어요(387)
- 변호인: (...) / 과장들 그리고 / 특정한 위치에서 조정하는 / 인격모독들에 / 맞서는 것이 / 여기서 우리의 과제입니다 / 2백만 사망자라는 숫자조차도 / 이 수용소와 연관해서 / 증명된 바가 없어요 / 이삼십만 살해정도 만이 / 증거 효력이 있습니다(446)

유럽유대인 집단학살을 아우슈비츠에서 직접 경험했던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독일의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재회하고 육성으로 맞붙었던 프랑크푸르트재판은 과거의 진실을 둘러싼 증인과 피고인들의 대결을 넘어서 독일사회 전체가 연관된 기억투쟁의 현장이었다.¹²⁾ 그 한편에는 피해자의 존재와 경험을 부정함으로써 가해자라는 집단정체성을 외면하려는 독일의 기성세대가 있었다. 그 다른 한편에는 집단학살의 구체적 증거들과 그 세부내용을 증언함으로써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의 믿을 수 없는 고통과 인권파괴를 고발하고, 인간으로서의 명예 회복을 원했던 피해자들이 있었다. 알라이다 아스만은 뉘른베르크와 프랑크푸르트

12) 1980년대 역사학자논쟁, 1990년대 골드하겐 논쟁과 발저-부비스 논쟁, 중앙추모관 Neue Wache 논쟁, 2000년대 국방군전사회 논쟁 및 베를린의 유럽유대인 희생자 추모비를 둘러싼 논쟁 등은 아우슈비츠재판이 열어놓은 포스트홀로코스트 기억투쟁의 장기적인 정치철학적 합의를 증명해 주고 있다. 21세기 들어 “기억문화에 대한 새로운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희생자에 대한 존중”에서,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하기 때문에 “홀로코스트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날 독일인들의 자기윤리이다. “나치의 범죄에 대한 기억은 독일인의 집단기억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Ruta 2014).

트에서 범정에 선 독일인들이 “힘겨워하고 무너지는 태도라기보다 지속적으로 거만한 태도였고 상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다”고 진단한다. “그들의 일관된 자세는 자아분리, 망각, 침묵을 통한 터부화를 통해 죄를 방어하려는 것이었다”(Assmann 2006, 98). 따라서 아우슈비츠재판과 바이스의 『수사』가 들춰낸 과거 악의 진면목 앞에서 도덕적 수치심과 자기혐오를 겪은 것은 오히려 관찰자인 사후(事後)세대, 즉 아들세대였다. 말하자면 사후세대의 시간적 거리가 악의 진실을 직시하는 윤리적 힘으로 전도된 것이다. 히틀러의 ‘자발적 집행자’들이 서서히 소멸해가는 21세기 문턱에 이르자 아스만이 지적한대로 가해자 트라우마는 세대를 넘어 전체 독일인들의 집단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었다(Assmann 2006, 98).

III. 파괴기계 - 아우슈비츠강제수용소

1968년 페터 바이스는 「기록극에 대한 메모 Notizen zum dokumentarischen Theater」에서 자신의 극미학적 원리들을 정리하는데, 여기서 그는 기록극을 일종의 대항적 공론장으로 이해하고 있음이 드러난다.¹³⁾ 바이스는 『수사』에 앞서 이미 1965년 6월 엔첸스베르거의 『쿠르스부흐 Kursbuch』 창간호에 재판과정을 축약한 「프랑크푸르트 발췌 Frankfurter Auszüge」를 게재한다. 당시 마르틴 발저는 ‘한 재판의 기록 Aufzeichnungen von einem Prozeß’이라는 소제목 아래 바이스의 위 기고문과 나란히 「우리의 아우슈비츠 Unser Auschwitz」라는 에세이를 게재하였다. 발저는 여기서 당시 “언론매체의 보도가 범죄자 개인과 넘쳐나는 잔혹성에만 집중함으로써 아우슈비츠의 현실을 부정”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재판과 아우슈비츠를 “흔히 단테의 지옥편에 비교하는 것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희생자들에 대한 감상적이고 유희적 동정이나 그릇된 공감을 경고”하였다. 그것은 “관념론적인 속죄개념과 결합해서, 이 재판의 본질적 차원을 그냥 불확실하게 남겨두는 결과만을 낳을 수 있다”(Söllner 1988, 167)는 것이다. 즉 친위대원 개인을 악마로 그리면서 집단적 원인 그러니까 개인의 그

13) 바이스는 “보도의 극 Theater der Berichterstattung”, “은폐, 현실왜곡, 거짓에 대한 비판 Kritik an der Verschleierung, Wirklichkeitsfälschungen und Lügen”을 기록극의 기능으로 언급한다(Weiss 1980a, 91f.).

러한 잔인한 행위를 가능하게 만든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¹⁴⁾

바이스나 발제가 비판하는 당시 저널리즘의 이런 제한된 관점은 사실 당시의 재판내용과 절차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FAZ의 나우만 Bernd Naumann 기자의 재판프로토콜 『아우슈비츠』(1965)에 따르면, 재판관 호프마이어 Hans Hofmeyer는 판결을 설명하면서 재판이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열린 것이 아니라 nicht dazu berufen, die Vergangenheit zu bewältigen”(Naumann 521. Zit. nach: Steitz 2017, 86)고 적시하였다. 같은 이유에서 그는 해당 공판을 ‘아우슈비츠-재판’으로 규정하기를 거부하고 공식적으로 ‘물카와 그 외 사람들에 대한 형사사건 Strafsache gegen Mulka und andere’으로 명명하였다. 이것은 프랑크푸르트법정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사법재판소가 적용한 국제법상 반인륜 범죄 죄목이 아니라 당시 서독 형법을 사법적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었다. 서독의 형법은 1954년 인종주의에 의거한 집단학살, 즉 체노사이드를 범죄로 명문화했다. 하지만 독일헌법이 규정하는 법조항의 소급적용불가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의 1945년 이전 행위와 관련해서는 결국 개인적 살인 행위의 증명여부가 관건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우어의 지적대로 “아우슈비츠재판은 아우슈비츠 이하 der Auschwitz-Prozess (ist) weniger als Auschwitz”라고 할 수 있었다. “독일형법의 재판관은 과거를 바라보지만, 사실은 행위들만 보며”, “유감스럽게도 독일의 비참함의 근원을, 독일적 악의 근원을 보지 않았다”(Steitz 2017, 84). 따라서 재판의 쟁점은 반인륜범죄나 체노사이드와 같은 개념을 떠나서 ‘살인 Mord’, ‘상해치사 Totschlag’, ‘주범 Täter’, ‘종범 Beihilfe’과 같은 문제로 전도되었다. 말하자면 “- 이론적으로나 절차적으로 - 당시 서독의 형법은 (...) 체노사이드를 다룰 만할 정도로 (...) 제대로 구비되지 못했다”으며, “국가의 지원 아래 체계적이고 관료적으로 조직된 집단학살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판결을 내릴만한 이론적 장치가 근본적으로 결여되어”(Pendas 2010, 56-61, Zit. nach: Steitz 2017, 86)¹⁵⁾ 있었다.

14) “이런 잔혹함을 가능하게 만든 조건들은 너무나도 아무 특징이 없고, 너무나도 역사적이고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것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야수로 꾸며낸 친위대원이라는 멋진 개념 앞에서 사라지게 된다. Die Bedingungen, die diese Brutalitäten ermöglichten, sind viel zu farblos, viel zu sehr im Historischen, im Politischen, im Sozialen zu Hause, also entschwinden sie uns vor dem saftigen Inbegriff eines SS-Mannes, den wir zur Bestie stilisieren”(Walser 1965, 192. Zit. nach: Söllner 1988, 167).

15) 프랑크푸르트재판에 대한 비트만과 펜다스의 연구성과(Wittmann(2005); Pendas(2010))를 슈타이츠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한다. 여기서 정리한 프랑크푸르트재판의 법률적 상황에 대한 서술은 슈

결국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재판은 독일형법 제 211조 살인조항과 제 212조 상해치사조항을 근거로 공소가 제기되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살인자는 살해욕구나, 성충동의 만족을 위해서나, 물욕에서 또는 그 밖의 비천한 동기에서, 은밀하게 또는 잔혹하게 또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여, 사람을 죽인 자”이다. 그리고 상해치사 범죄자는 “살인자가 아닌 자로서, 인간을 살해한 자 ...”(Steitz 2017, 86f.)이며 후자는 5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 개개인의 살인에 대한 주관적 동기와 비정상적 욕구를 밝혀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게다가 기록물들이 상당부분 파괴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20여 년 전 사건에서 개인적 살인동기와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피고인들이 자신은 나치주의자가 아니며,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 최대한 중범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실제로 22명의 피고인 중 살인죄를 적용받은 경우는 7명뿐이었다(Vgl. Steitz 2017, 87f.). 이러한 법률적 상황과 목표로 인해 결국 아우슈비츠법정이나 그에 대한 언론보도 모두 가해자를 괴물이나 사디스트로 포착하고 그려내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뤼젠의 개념을 빌자면 나치즘을 악마화하고 타자화 함으로써 독일사회 외부로 치외법권화 하는 효과를 낳는 것이었다. 그로테스크하게도 나치 당시 독일의 법 역시 개인적 가학의 열정으로 포로를 고문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포로를 살해하는 친위대원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프랑크푸르트재판의 모든 법적 근거와 절차가 아우슈비츠에서 실제로 벌어진 집단범죄의 진실, 집단학살의 내용과 방식, 주체와 행위를 파악하는데 너무나 부적절하다는 점을 바꾸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실제 상황과 법적 상황은 너무도 단순했습니다. 즉, 나치가 지배하는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절멸하라는 하나의 명령이 있었고, 살인도구는 아우슈비츠, 트레블링카 등등이었습니다. 이 살인기계에서 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인에 참여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Bauer: Im Namen 83. Zit. nach: Steitz 2017, 88).

홀로코스트 전체를 국가 주도하에 수행된 하나의 체계적인 집단학살 행위로 규정하고, 개별 강제수용소들을 집단학살공장으로 작동하게 만든 모든 정치적, 법률적, 물리적 행위들이 그 범죄행위의 일부이며, 따라서 그 과정에 참여한 모

타이즈가 위 두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설명한 것을 압축한 것이다(Vgl. Steitz 2017, 80-86).

든 독일인이 살인행위의 공범이라는 바우어의 주장은 종전 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고향도시에서 다시 평범하게 살고 있던 수많은 독일인들에게 집단 학살의 죄를 묻자는 도발적인 요구였다. 실제로 아우슈비츠수용소에서 근무했던 독일인들 중 현대적 심리검사의 방법을 적용했을 경우 사디스트적인 주관적 살해충동을 가진 것으로 분류될 만한 인원의 범위는 약 10% 미만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바우만 2013, 54). 재판관을 참관한 미국작가 아서 밀러는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누구라도 자기 독일 삼촌으로 여길 만큼”(Das Ende des Schweigens) 걸로 보기에 평범한 독일들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끔찍했다고 말하였다. 제발트 역시 이 재판관의 피고인들이 “내가 이웃으로 알았던 종류의 사람들 - 우체부나 철도공 - 이었다”(Jaggi 2001b)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실제로 프랑크푸르트재판관의 피고인들은 전후 새로운 독일사회에서 공무원으로, 사업가로, 연금생활자로 잘 살아가고 있었다. 따라서 당과 친위대, 군대의 소수 고위직 나치들에게 살인죄를 전가하고 ‘상관의 명령 Befehlsnotstand’이라는 변명 아래 양심과 법의 추적을 피했던 다수의 중간급과 하급 나치 출신 독일인들에게 프랑크푸르트재판은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과거청산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커지면서 1871년 형법에서 유래하는 살인죄 20년 ‘공소시효주장 Verjährungsthese’도 또 하나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 조항을 두고 벌어진 1965년 독일연방의회의 논쟁은 기나긴 과정을 거쳐 비로소 1979년에 255대 222 표로 간신히 위 조항의 폐지로 낙착되었다. 바이스는 『수사』의 서두에서 이 극으로 고발되어야 할 범죄행위가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이름을 가진 자들을 다시 한 번 고발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드라마 작가에게 단지 이름을 빌려주는 것이다. 그 이름은 많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체제에 대한 상징으로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른 이들은 이 법정에서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259).

프리츠 바우어와 마찬가지로 페터 바이스는 아우슈비츠의 집단학살을 나치 독일의 이데올로기와 관료체제, 그리고 자본주의 산업의 합작품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작가는 극중 인물들의 진술을 철저하게 증언과 기록물들을 토대로 재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사회학적 해석의 진실성을 담보하였다. 1965년 『수사』 초연 후 바이스는 한스 마이어와의 인터뷰에서 “어마어마한 증인진술 자료에서부터”

“그런 수용소의 거대한 기계장치”, 즉 “도착에서부터” 최종적으로 “굴뚝으로”(Weiss 1965, 9) 매 단계를 이동해가도록 만드는 그 기계장치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자신은 상상 불가능한 것을 극복하는 것, 그것을 사실적이고 표상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¹⁶⁾고 말한다. 이 극에 대한 초기수용의 전형적 비판 중의 하나는 바이스가 이 학살기계의 배후로 자본주의경제체제를 지목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IG 화학이나 크롭스 등에 대한 극중 언급에 의거해 이 극의 목표가 나치즘을 자본주의로 환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야말로 환원주의의 오류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 대기업들은 수용소 주변에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성찰할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독일의 관료제와 마찬가지로 나치즘과 강제수용소의 작동에 동원되었다는 사실, 즉 이 인간대량학살 체제에 제동을 거는 힘을 전혀 발휘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이다. 아우슈비츠수용소가 바로 현대적인 행정과 규정, 이념과 전문가, 기업과 노동, 기술과 기계, 그리고 수감자들조차도 성공적으로 통합해냄으로써 비로소 하나의 효율적인 인간대량과괴와 학살의 사회적 체계로서 작동했다는 사실은 『수사』가 던지는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 중 하나이다.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Modernity and The Holocaust』(1989)에서 홀로코스트의 사회학을 주창한 지그문트 바우만은 나치의 학살수용소와 근대문명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시작한다. 그는 홀로코스트를 문명이 야만을 통제하지 못한 일회적 일탈현상으로 보거나, 독일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역사적 사건으로만 치부하거나, 또는 반대로 현대문명에 내재한 규율과 통제의 필연적 결과로 보는 입장에 모두 거리를 둔다. 크게 보면 바우만은 홀로코스트를 의도주의 모델이 아닌 기능주의 모델로 설명하는 사회학적 입장에 있다. 그의 서술에 따르면 기능주의 관점은 바로 나치의 권력자들이 수용소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추구했던 것이기도 했다. 비인간적 행위를 시행해야하는 수용소 친위대원들이 과도한 동정심으로 고통을 받거나 또는 반대로 개인적 이익이나 동기에서 살인하지 않도록, “부하들의 정신적 온전함을 유지하고 도덕적 기준을 높이는”(바우만 2015, 56)데 힘려가 적지 않은 관심을 보였다고 바우만은 아렌트의 연구를 빌어서 강조한다. 유대인의 최종해결을 위해서 “개인의 창의성이 억

16) “Für mich ist die Hauptsache bei dieser Arbeit gewesen, dies Unvorstellbare zu überwinden und es sachlich und vorstellbar zu machen.”(Weiss 1965, 9.)

제되었고 전체과업을 사업처럼 그리고 엄격히 비인격적인 틀 안에 유지하려는”(바우만 2015, 55)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렌트에 앞서 유럽유대인학살에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집단학살의 전체적이고 복합적인 기제를 추적한 라울 힐베르크는 『홀로코스트. 유럽유대인의 파괴』(1961)에서 독일인 학살자는 별종의 독일인이 아니었다고 단언한다. 바우만도 지적하듯이, 수용소체계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행정 계획, 사법 구조, 그리고 예산 체계의 속성 그 자체로 인해 인력의 특별 선발이나 특별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바우만 2015, 57). 라울 힐베르크는 유대인 파괴의 3단계론 및 다극의 파괴기계론을 주장하는데, 그는 나치독일의 유대인파괴가 정의-약탈-집중-절멸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행정관료)-군대-경제-금융계-나치당, 이렇게 4개의 기관이 자율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유대인 “파괴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비록 그 “역사적 기원과 이해관계가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파괴기계”라고 지칭할 수 있을 만큼 “이 네 기관의 협조”는 “완벽”(힐베르크 2008, 112)했다고 그는 말한다. 행정관료 집단은 초기의 다양한 반유대적 법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정의), 약탈과 집중에도 직접 관여하였다. 독일외교부와 제국철도국의 유대인 이송이 그 예이다. 독일군은 광범위한 영토를 정복한 주체로서 “파괴과정에 휩쓸려” 들어갔다. “그 중에는 특수기동대를 통한 학살작전의 전개와 학살수용소로의 유대인 이송이 포함”(힐베르크 2008, 112) 되어 있다. 경제 및 금융계는 “유대인 재산의 강탈, 강제노동, 가스학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치당은 민족주의 관점에서 유대인과 관련된 모든 일에 관여했고, 그래서 경찰과 통합된 친위대는 학살작전을 담당한다. 여기에 더해 학살행정에 4개 기관 고유의 특징이 부여되는데, “행정관리들은 (...) 탄탄한 기획력과 관료제다운 철저함을”, 군대는 “파괴과정에 군사적 정확성과 규율과 냉정함을”, 경제계는 “회계와 최소비용의 원칙과 재활용, 학살센터에도 공장과도 같은 효율성을” 부여했고, 마지막으로 나치당은 전체 기관에 “일종의 이상주의, 사명감, 우리는 역사를 만든다는” 관념을 고취했다. “4개의 기관은 행동에서만 통일되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정신에서도 하나였던 것이다”(힐베르크 2008, 112 이하).

바우만은 하버드대학 사회윤리교수인 켈먼 Herbert C. Kelman의 견해를 빌어 보통의 독일인들이 양심의 저항을 받지 않고 이 복합적 집단학살기계의 하수인으로서 자신의 인격을 왜곡, 적응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즉, (합법적 권한이 있는 부서들에서 하달되는 공식명령에 의해) 폭력이 승인”되고,

“(규칙을 따르는 관행들 및 역할의 정교한 구체화에 의해) 행동이 일상화” 되고, “(이데올로기적 규정과 교의에 의해) 폭력의 피해자들이 비인간화 될 때”(바우만 2015, 57) 평범한 인간의 내면적 도덕적 저항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 세 조건을 유럽유대인 집단학살에 적용해보면, 첫째, 게르만 종족우월주의와 반유대주의 이념이 유대인을 탈인간화하고 타자화하는 수많은 왜곡된 이미지와 내러티브들을 만들어내고, 둘째, 유대인이 없는 순수 독일인들의 국가를 만들자는 총통의 명령이 모든 국가기관이 따르는 절대적 법률의 권위를 가지게 되고, 셋째 국가의 각 기관에 내려진 이 명령을 그 관료체제가 도덕적 질문을 배제한 채 비인격적인 세부 행정조치와 절차로 전환하고 시행함으로써, 평범한 독일인들 다수가 양심의 마비 아래 저 전무후무한 집단학살기계의 톱니바퀴로서 기능하게 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 기능주의 설명모델의 장점은 국가의 죄를 추상적으로만 상상하거나, 그것을 소수의 최고 권력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프리츠 바우어의 사법비판, 그리고 힐베르크나 한나 아렌트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이러한 기능주의 모델을 가능하게 만든 토대였다. 앞서 말했듯이 바이스는 『수사』에서 아우슈비츠수용소라는 학살기계와 그 존재의 조건이 되는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고자 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극이 유대인문제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홀로코스트를 작가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수단화했다는 비판은 오히려 이 작품에 내재된 문학적, 윤리적 통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세분화된 행정과 문서, 그리고 규정과 지시에 대한 비인격적 복종의 체계로 실현되는 소름끼치는 일상적 ‘악의 평범성 Banalität des Bösen’을 극 중 증인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증인 3: (...) 샤츠 박사와 프랑크 박사도 / 자신들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 강제수용자들에게 항상 친절하였지요 / 그들은 중요심으로 죽이지 않았고 / 확신을 가지고 살해하지 않았어요 / 그들은 살해해야만 했기에 죽였어요(324)

“증인 9: 그는 먼저 벤질 주사를 놓았지요 / 그러나 그것은 비실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왜냐면 45분이 지나서야 / 죽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 그래서 더 빨리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찾게 되었습니다 / 두 번째는 수소였고 / 그 다음이 폐놀이었지요(395)

“증인 6: (...) 사령관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 이제야 안심이 되는구나 / 이제 우리에게는 가스가 있다 / 그러니 이러한 모든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군 / 그리고 희생자들도 / 마지막 순간까지는 / 보호받을 수 있겠네(418)

작가 바이스를 대변한다고 보이는 증인 3은 법정에서 참석한 독일인들을 향해서 일갈한다. 현재의 “우리들은 이러한 수용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 고매한 태도를 버려야만 (한다) / 우리 모두는 / 그런 수용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 정권을 생겨나게 한 사회를 알고”(335)있다고 외친다. 송강장에 도착한 수감자들로부터 탈취한 수십억 마르크의 유가물은 “제국의 은행과 경제국으로 계속해서 인도”(281)되었고, “전쟁에 주요한 사업이”되는 “고무나무 재배”(346)를 위한 노력에, “파르벤사의 합성고무 공장”(347) 작업에 수감자들이 강제 동원되었고, “제약회사의 요구에 의한 연구가 시도”(347)되었고, “전시경제를 위해” 수감자들은 강제노동을 하였고, “대기업(...)은 / 무한한 인간의 소모를 통해 / 수십억 대의 연매출을 / 달성”(352)하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화로 제작사인 / 토프운트 죄네는 / 전쟁이 끝난 후에 / 자신들의 특허장에 명시한 것처럼 / 터득된 경험을 바탕으로 / 화로의 설비를 / 개선”(439) 하지 않았느냐고 그는 묻는다.

IV. 릴리 토플러 - 생명정치와 포스트홀로코스트 기억의 윤리

서두에서 언급했던 『수사』의 영향미학적 충격감정은 일차적으로 인간신체에 가해지는 파괴행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묘사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피고인 2인 보거는 ‘그네 매달기’라는 고문에서 “고무방망이로” 증인 8의 “엉덩이 / 등, 허벅지 / 손과 발 / 뒤통수 / 특히 성기를 / 가격한다”(320). “피가 바지 사이로 흘러내릴 때”(321)까지. 여성 증인 4는 “개인적인 경험에서”(342) 생체실험을 증언한다. “17세에서 18세의 / 소녀들”이, “제일 건장한 소녀들”이 선발되고, “난소에 (X레이) 광선을 쬐인다.” “난소가 불타버리면서”, “심한 화상과 궤양이 / 배와 엉덩이에 생겨” 난다. “3개월 내에” “난소와 나팔관이 제거”되는 “여러 수술들을 해대는데”, 이 소녀들은 “수술 중에 죽지 않으면”, “몇주 후 / (...) 외양이 늙은이처럼” 변한 채 “곧 죽었다”(339이하). 또 다른 생체실험은 “나팔관을 협착시키기 위해”, “시멘트 덩어리 같은” “액체를 / 자궁 속을 투입”

한다. 그건 “타는 듯이 쓰라린 고통”과 “배가 터질 것 같은”(340이하) 느낌이다. 피고인 2인 보거는 “등에 충을 숨긴” 채 “6살 내지 7살의” 어린 여자 “아이의 손을 잡”고는 “씩씩하게 함께 걸어간” 뒤 그 아이를 “검은 벽으로 얼굴을 향하게” 하고, “권총을 들어 /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 그 아이에게 총격을 가한다.” “그 아이의 부모도 / 며칠 전에 / 거기서 총살되었다”(379). 수용소에서 사체 소개 업무를 한 증인 3에 따르면, “시체는 몇 겹으로 / 층층이 쌓는다 / 이 때 머리를 도랑 위로 놓아서 / 피가 잘 흘러나가도록” 한다. “총격은 / 귀나 턱에만 가해지는 데 / 운반해 나갈 때 / 가끔 아직 살아있으면”, 그들은 “들 것을 내려놓아야 했고”, “부상자는 머리에 다시 한 번 / 총격을 당했다”(385).

바이스는 이 참혹한 신체과괴의 행위들이 실제 법정에서보다 개인적 감정의 동요를 최소화한 채 묘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극의 서두에서 극 중 진술과 반박을 “개인적인 체험과 대결” 이라기보다 “익명의 것”(259)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이 요구는 독자와 관객이 생존자인 증인과 개인적으로 동일시하여 아우슈비츠의 학살을 특정한 개인의 고통이라는 인지적 틀로 수용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콘타르스키는 『수사』의 형식적 원리와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사실의 보고, 기소와 변호, 죄의 확인 노력과 분석이라는 3단계가 11개의 장에서 매번 단조롭게 반복되는데, 이는 일관되게 사실적 죄의 증명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가는 법정대화의 형식에 조응한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약 2백여 쪽에 걸쳐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진술과 반박의 기나 긴 과정은 도착에서 소각까지 이어지는 기계적이고 연속적인 인간과괴의 자동벨트에 유비적으로 부응한다고 주장한다(Vgl. Kontarsky 2001, 38). 게다가 이 극은 실제 법정과 달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채 재판의 공식명칭이 된 증인 1인 몰카의 진술에서 끝남으로써, 아우슈비츠 집단학살을 증언하려는 자와 부정하려는 자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현대국가에 의한 초대규모 인간집단학살이었던 홀로코스트 당시 나치 독일인들은 이 사실을 비밀유지 행정명령으로, 증거와 흔적의 제거로 지우고 부정하였다. 나치가 전체 유럽유대인학살을 ‘유대인문제의 최종해결 Endlösung der Judenfrage’로 표현한 것, 그리고 관련된 행정지시에서 학살과 관련된 세부 행위들의 구체적 진실들을 알 수 없게 호도하는 추상적 언어를 빈번히 사용한 것 역시 사실행위의 은폐전략이었다. 이 전략에 맞서 페터 바이스는 어마어마한 증인 진술 자료를 토대로 수용소라는 거대한 학살기계장치의 세부 장면과 구체적 내

용을 마침표도 없이 단선적이고 병렬적으로 이어지는 집요한 언어의 그물로 다시 살려 내었다. 우리가 『수사』에서 만나는 아우슈비츠수용소의 신체파괴, 그 고통과 공포는 특정한 개인 하나의 것이라기보다 셀 수 없을 만큼 대규모의 인간들이 겪었던 아픔과 절망의 끝없는 대해로 우리를 이끄는 기호이자 주문(呪文)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프리모 레비의 친구이자 철학자인 조르조 아감벤은 미셸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에 착안하여 호모 사케르(신성한 인간 Homo sacer)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는 호모 사케르란 인간 희생양과 다르게 그 자체로 신성하기에 희생제물이 되지 않지만, 동시에 공동체 영역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법적 보호 바깥에 있다고 말한다. 즉 그를 살해하여도 살인자는 처벌되지 않는다(아감벤 2008, 155-175). 아감벤은 1789년 프랑스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는 ‘인간은 불가침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자연법사상이 표현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한다”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 2조에서 보듯이, 자연법을 담보한 “자연생명은 시민이라는 형상으로 대체되며 시민의 권리 속에서 ‘보전’된다”(아감벤 2008, 250)고 지적한다. 푸코는 근대국가의 규율권력이 인간의 신체를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자연적 주권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생명정치를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아감벤은 이러한 근대국가의 생명정치를 예외적으로 극대화 한 경우가 나치즘과 파시즘이라고 말한다. 나치즘은 ‘피와 땅’ 개념을 동원한 특유의 생명정치적 운동을 전개하는데, 1935년 제정된 소위 뉘른베르크법, 즉 <독일인의 피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s deutschen Blutes und der deutschen Ehre>과 <제국시민법 Reichsbürgergesetz>은 나치 생명정치의 결정판이었다. 1942년 베를린 반제회의에서 제기된 유럽유대인문제의 최종해결, 즉 강제수용소체제를 통한 집단학살은 유대인들로부터 국적에 이어 영주권을 박탈하는 법률적 조치가 선행되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다고 아감벤은 강조한다(아감벤 2008, 257). 강제수용소는 국가의 시민권이 정지된 예외적 영토로서 근대국가의 질서에 속하는데, 그곳에서 일체의 정치적 주권이 박탈된 수감자들은 어떤 폭력도 가해질 수 있는 벌거벗은 생명, 즉 호모 사케르의 지위와 유사해진다. 강조할 것은 이들 벌거벗은 생명은 단순히 법에 의해 구분되는 정치 외적인 자연적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된 법이며 그렇게 사실이 됨으로써 어떤 법적 조치도 실시 가능한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아감벤은 나치의 강제수용

소와 관련해서 제기해야 할 것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범죄들이 인류를 대상으로 자행될 수 있었는가라는 위선적인 질문”이 아니라, “인간 존재로서의 권리와 특권들을 어찌면 그토록 완벽하게 박탈했는지, 그들에게 자행된 어떤 짓도 더 이상 위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법적 절차와 권력장치들”(아감벤 2008, 323)을 탐구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아감벤은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 문서고와 증인』(1998)에서 ‘아우슈비츠의 아포리아’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 개념은 단순히 증거와 기록에 근거한 사실 확인, 생존자의 증언과 기억을 통해서만은 도달할 수 없는 수용소의 특수한 본질을 지적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프리모 레비의 ‘회색지대’라는 개념을 빌어 유대인학살수용소가 인간을 ‘인간이하의 인간 *underman*’, 선과 악 이전의 무책임의 영역으로 밀어 넣는다고 말한다(아감벤 2012, 29). 회색지대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연결하는 긴 사슬’이 느슨해져 ‘피억압자가 억압자가 되고, 또 가해자가 피해자로 나타나는 그러한 지대’로 선과 악의 구분이 사라지는 지대이다. 회색지대의 가장 분명한 예는 유대인 수감자들로 구성된 소위 특수분대 *Sonderkommando*로, 이들은 수용소 집단학살의 마지막 처리과정을 담당하였다. 나치는 독일인 친위대원들의 심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또 특수분대원들 역시 조만간 순차적으로 사라질 운명이니만큼 집단학살의 증인들을 절멸시킬 목적으로 이 특수분대를 운영하였다.¹⁷⁾ 몇 개월간의 죽음의 유예, 또 조금 더 나은 물질 조건을 위해 가해자가 된 이들 피해자는 유대인 수감자집단 전체의 도덕적 정체성을 흔드는 존재였다. 프리모 레비는 “처음 받은 위협, 첫 모욕, 첫 구타는 SS로부터 온게 아니라 다른 포로들, ‘동료’들, 갓 입소한 사람들이 방금 같이입은 것과 똑같은 줄무늬 유니폼 차림의 그 불가사의한 인물들로부터 왔던 것”(레비 2017, 11)이라고 증언한다. 그러나 강제노동과 학살의 원칙이 지배하는 수용소의 삶은 이들 특수분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수감자들 사이에서 작은 빵 한 덩이를 두고 “온 블록에 고향, 싸움, 욕설이 난무하게”(레비 2008, 54) 만든다. 다수의 생존자 보고에 따르면 수용소의 수감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들의 은어로 ‘무젤만 *Muselman*’, ‘걸어 다니는 시체’로

17) 이들은 수용소의 집단학살의 마지막 처리과정을 담당하기 위해 나치가 구성한 유대인작업분대로 “시체를 끌어내 씻기고는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금니를 뽑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몸을 화장로에 집어넣는”(아감벤 2012, 14) 일을 담당한다. 이들은 그 외에 직접소각이나 남은 유골의 분쇄 등을 담당하였다.

퇴화하는데,¹⁸⁾ 이것은 생물학적 인간성의 쇠락과 더불어 인간적 자유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상실한 ‘비인간’의 상태라고 프리모 레비는 말한다. 생명의 박탈이라는 극단의 억압적 생명정치가 지배하는 수용소 공간이 지옥이 되는 결정적 원리는 수용소 전체가 대량 죽음을 생산하는 기계사회로 조직되는데 있다. 즉, 대량학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용소는 수감자들의 신체적 생명력을 극단적으로 착취하며 관리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삶의 본능은 수감자들로 하여금 수용소 사회의 질서,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할 그 사회의 질서에 적응하고 편승하게 만든다. 수용소의 구성원들은 결국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서적으로도 인간성의 파괴라는 가해자의 원리에 포획되는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이러한 파괴기계사회의 회색시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수사』의 증인 5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증인 5: 사람들이 바글대는 승강장으로 / 열차 칸에서 뛰어내릴 때부터 이미 / 나는 자신의 강점을 잘 지키는 것 / 위쪽으로 고분고분 따르는 것 / 좋은 인상을 주는 것 / 나를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는 / 모든 것을 떨리하는 것이 / 중요하다는 것을 / 알게 되었습니다. / (...) / 가족 고향 직업 그리고 재산 / 그것은 숫자를 매김으로써 / 말소되는 개념이었습니다 / 그리고 우리들은 이미 / 새로운 개념에 맞춰 살기 시작했으며 / 이러한 세계에 순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거기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 이 세계는 / 정상적인 세계가 되었지요 / 최상의 법은 / 건강하게 살며 / 육체적인 힘을 제시하는 것이었어요 / 배급된 음식을 먹을 / 힘도 부치는 / 사람들 옆에 / 바짝 붙어 있었어요 / 기회가 되면 가장 먼저 / 그 음식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 좀 더 나은 잠자리 칸을 차지한 누군가 / 죽기 직전이면 / 나는 계속 그 자리를 노렸어요 / (...) / 우리는 야망을 / 단 한 가지 목표에 걸었죠 / 무엇인가를 차지하는 것 /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것은 / 정상이었어요 / 우리가 다시 훔치는 것은 / 정상이었어요 / (...) / 결코 주의력을 느슨하게 하는 바 없이 / 매일 / 한 뺨이라도 자기 영역을 넓히는 / 교활한 자들만이 생존할 수 있었어요 / 무능력한 사람들 /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 / 온순한 사람들 / 혼란스러워 하고 실용적이지 못한 사람들 / 비통해 하는 사람들과 / 자기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 마구 짓밟혔어요(287f.)

18) “심지어는 이 유기체들에게는, 항상 외부 자극이나 내부 자극에서 비롯되어 전두엽을 거쳐 감각과 행동에 이르는 반사궁이 결여되어 있거나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수인들은 더 이상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이슬람교도’ 단계에 들어갔다”(Bettelsheim 1960, 152. 재인용: 아감벤 2012, 86이하). 베텔스하임은 수용소 소장 회스 역시 “자존감이나 자기애를, 감각과 인성을 완전히 박탈당한” 채, “전적으로 실무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 기계나 마찬가지로”라는 점에서 “잘 먹이고 잘 입힌 이슬람교도”(Bettelsheim 1960, 238. 재인용: 아감벤 2012, 86) 라고 규정한다.

아감벤은 이처럼 인간을 그 일상에서 외적, 내적으로 비인간의 상태로 이끌도록 조직된 학살수용소라는 극단적 생명정치의 윤리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아우슈비츠의 아포리아’라는 개념으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라. 실제로 전후 홀로코스트 논의에서 유대인 특수분대에 대한 언급은 한동안 터부였다.¹⁹⁾ 특수분대 출신 생존자들은 전후에 대부분 자신의 경험에 대해 침묵하였는데, 그것은 신체적 도덕적 자아의 이중적 절멸의 트라우마 및 그와 연관된 깊은 수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수분대원 레벤타는 비밀 일기에서 자신이 겪을 일들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것’, 자신들의 ‘경험을 정확히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 없다’(아감벤 2012, 14)고 고백하고 있다. 레벤타가 고백하는 윤리적 인지적 절대혼란과 수치심은 사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들, “어느 정도 특권을 누린”(아감벤 2012, 49) 자들 전체의 것이기도 해서, 바이스의 극 중 생존자들의 증언은 종종 고통과 혼란으로 중단되고 불확실하다. 증인 4는 아직도 남아 있는 “팔에 쓰여진 숫자”(339) 때문에 과거를 잊을 수가 없다. 여름에 소매 없는 옷을 입은 자신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보내는 “조롱의 표현”(339) 때문에 그녀는 내면에서 여전히 수용소 안에 있는 것 같은 트라우마 상태에 있다. 바이스는 『수사』에서 아우슈비츠의 학살자와 희생자의 대립을 악마 대 순교자라는 일차원적 관계로 설정하지 않았다. 바이스는 평범한 독일인들, 그리고 피해자들마저도 자신의 일부로 흡수하는 파괴기계로서의 수용소사회를 지배하는 ‘악의 평범성’의 일단을 그려냈다. 더 나아가 그는 『수사』에서 학살자와 희생자가 사실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 인간들, 때로는 같은 직업을 가진 동료 또는 같은 고향 출신이었으며, 때로는 같은 지적 관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이기도 했다고 암시한다.²⁰⁾ 이런 점들은 작가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이를 무산시키고 있다는 비난의 근거가

19)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홀로코스트 유대인 협력자들을 언급했던 한나 아렌트는 이스라엘과 유럽유대인 사회 전체로부터 쏟아지는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다. 바이스가 그의 극에서 유대인 희생자들을 적극적으로 주체화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비등했던 반면, 위의 증인 5가 진술하는 수용소 내 유대인의 생존방식에 대한 작가의 위선 없는 시선은 바이스 연구사에서도 이상하리만치 도외시 되었다.

20) 알다시피 유럽 특히 서유럽 유대인들은 정착한 지역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였다. 동유럽 유대인 공동체의 이디시어나 토라의 신성한 문어인 히브리어는 해방된 유대인들에게는 낯선 언어였다. 프리츠 바우어 연구소 Fritz-Bauer Institut의 프랑크푸르트재판 음성 기록을 일부 직접 청취하면서 필자가 느낀 첫 번째 충격은 생존자인 유대인 증인들, 이미 상당 기간 독일을 떠나 있던 그들이 독일어를 너무 잘한다는 것, 즉 그들의 모국어는 독일어였으며, 그들은 사실상 독일인이었다는 직감이었다. (<http://www.auschwitz-prozess.de>)

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접성에 대한 작가의 이러한 암시는 오히려 누가 추방되어야 할 것인지의 기준은 자연적 필연성과 무관한 것으로 오로지 국가의 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아감벤의 통찰에 조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철저하게 독일인으로 성장하고 살아온 유대계 혈통의 바이스는 자신이 어떤 이유로든 공식적으로 유대인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다른 많은 독일인들처럼 한 도시, 한 마을에 사는 이웃들에 대한 집단학살을 목인하거나 경우에 따라 참여했을 가능성을 언급한다.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준비 중이었던 이십 세의 하급 친위대원 슈타르크는 “징집되어”(357) 아우슈비츠 수용분대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는 “학창시절에 세 마디 중 한마디는 / 모든 것의 원흉인 자들 / 박멸되어야 할 / 그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이 모든 것이 / 우리 민족을 위한 / 최선이라고” 수없이 들었다고, “총통학교에서는 무엇보다 /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배웠다고”(369) 항변한다. 이 젊은 슈타르크는 증인 8에 따르면 시험준비를 위해 자신들과 함께 “괴테의 인본주의에 대한 토론을 하기도” (356)했고,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후 1942년 수용소 근무로 복귀하였다가, 일 년 간 휴가를 받아 대학을 준비하기도 했고, 1944년 전선에서 싸우다 부상을 입었으며, “정상화된 상황 / 다시 살아가도 되는 전후에는 곧바로 / 모범적으로 발전”했으며, “우선 농학을 대학에서 수학하고 / 공무원시험을 치루고 / 경제부서 전문가였고 / 체포될 때까지 / 한 농업학교에서 교사로 있었다”(366). 그런데 이 평범한 독일청년 슈타르크는 1941년 가을과 겨울에 수용소에서 자행된 2만 5천명 소련포로들의 살해를 “알고 있었고”, “승인했고”, “일부 참여했고”(367), 150명의 수감자들을 가스로 학살하는데 동참하였다(368).

수용소 도착에서 소각로까지 파괴기계의 공간적 동선을 따라가며 심문이 전개되는 『수사』는 도착을 다루는 1장을 제외하면 고문과 학살의 강도와 규모가 점증하는 수용소의 단계적 국면을 그리고 있다. 흥미롭게도 바이스는 이 과정의 대략 중간부분에 해당하는 5장과 6장에서 예외적으로 특정한 개인의 운명을 다루는데, 그 주인공은 각각 동료들과 비밀편지로 소식을 주고받다가 발각되어 총살된 희생자 릴리 토플러와 방금 위에서 소개한 친위대원 슈타르크이다. 수용소의 희생자 집단과 독일인 가해자 집단 전체에 대한 각각의 기념비로 간주되는 이 두 인물은 작가가 양 집단에서 읽어내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는 열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반인륜적 총통의 의지를 국가의 법적 당위로 받아들인 아이히만이 복종의 의무감에 충만

한 채 법이 지시하는 내용을 자신의 신념으로 내면화하였고, 그래서 마치 자신이 “법의 제정자인 것처럼 행위 하는” “완벽한 관료의 진형”(아렌트 2006, 211)이 되었다는 진단을 내린다. 아렌트가 아이히만의 사례에서 도출한 악의 평범성 개념은 앞서 분석했듯이 바로 슈타르크의 행위를 이해하는데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슈타르크는 국가의 학살기계에 기꺼이 가담한 평범한 권위주의적 독일인들,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채 전후 서독사회에서 다시 잘 살아가는 그 평범한 독일인들에 대한 불편한 경고의 기념비이다. 그에 반해 릴리 토플러는 피해자들을 인간적 자유와 선택권을 상실한 비인간의 상태로, 소위 ‘무젤만’으로 내모는 수용소라는 파괴기계의 힘에 저항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아름답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정치국과 수용소 주변 군산업체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하기도 한 수감자였다. 그녀는 수용소 내 다른 남성 수감자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다가 발각되었는데, 그 편지는 친구에게 “그녀가 본 것들 / 그녀가 알고 있는 것들에도 불구하고 / 더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녀의 인간적인 고민과 “그녀가 들었던 / 희망적인 소식들”(344)을 전하고 있다. 수감자 간의 이러한 보고와 의견의 교환은 나치의 집단학살 관련 비밀유지 규율을 어기는 행위로, 그녀는 정치국의 “비밀을 알고 있기에” “다른 수감자들과 / 어떤 접촉도 해서는 / 안되었다고”(344) 그녀를 총살한 피고인 2번 보거는 진술한다. 릴리는 소통과 공감의 인간적 윤리와 용기를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인물로, 죽음의 순간에도 편지 수신자인 친구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언어의 사용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교감과 공감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주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무젤만에게서 나타나는 비언어(아감벤 2012, 58)와 침묵은 바로 수용소라는 착취와 파괴기계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지점이며, 미래의 기억과 증언이 말할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고립된 수용소의 예외적 생명정치적 영토에서 집단학살의 대상이자 그 파괴기계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수감자들의 삶의 무의미성을 상쇄하는 유일한 희망은 ‘증언’의 기약이었다. 아감벤은 비언어의 영역으로 들어간 무젤만의 무의미성의 진실이 영원히 증언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감벤이 ‘증인의 아포리아’ 개념으로 홀로코스트 기억의 특별한 어려움을 지적한 이유는 사법적 판결이 규정하는 홀로코스트의 진실이나 자기위선이 뒤섞인 생존자들의 증언에 거리를 두고 싶었기 때문이었다(아감벤 2012, 19-59). 프리모 레비는 1945년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증인’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수용소의 역사가 “나처럼 바닥까지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해 쓰였다고 단언”한다. 왜냐면 “바닥까지 가본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

거나, 자신의 관찰능력이 고통과 몰이해로 마비되어”(레비 2017, 17) 있었다고 말한다. 장 아메리 역시 고문당한 자, 인간성이 육체로 축소되는 경험을 한 자들의 원한, 즉 과거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 가해자가 한 행위의 비인간적 진실을 드러내기 원하는 집요한 갈망에 대해 이야기하였다(아메리 2012, 81). 『수사』의 릴리 토폴러는 무젤만이라는 기호가 지시하는 홀로코스트의 비인간성이 인간의 무엇을 빼앗아간 결과인지, 저 극단적 생명정치가 억압하고 파괴한 인간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시사한다. 언어와 기억은 인간의 자연생명에 내재된 자유를 향한 저항의 본질적 매체이다.

V. 나가는 말

이제 과거에 대한 속죄와 청산을 종료할 때가 되었다는 1950-1960년대 주류 독일사회를 바이스는 “만복감을 느끼는 듯” 코골며 “잠자는 거대한 육체”로 비유하며, 저 파국 이후 기대했던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당시 사실은 학살되어야 했으나, 간신히 그것을 피했을 뿐인 사람들만이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Weiss 1980, 9f.)고 한탄한다.²¹⁾ 당시 많은 나치범죄자들이 사면을 받고 독일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복귀하였던데 반해, 고향을 떠난 유대인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은 여러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쾰너는 극중 증인 4의 반복적인 진술 중단 및 침묵을 “공소나 증인들이 주장하는 범죄의 정도와 그 증명가능성 사이에 불균형이 분명해지는 때면 언제나 등장”(Vgl. Söllner 1988, 178) 하는 피고인들의 집단적 웃음과 대비하면서, 그것은 재판이 벌어지는 현재까지 지속되는 양자 사이의 사회적, 정서적 권력관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바이스는 극 중 마지막 발언권을 피고인 1에게 줌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독일 대중사회의 암묵적 동의에 관객들이 마주치게 만들었다. 바이스의 『수사』는 나치의 유럽유대인 학살을 최초로 극미학적 방식을 통해 사회적 기억으로 환수한 사례였다. 아우슈비츠재판이 열어젖힌 집단기억을 둘러싼 투쟁의 공론장

21) 앞서 언급한 프리츠 바우어, 라울 힐베르크, 한나 아렌트 모두 유대계 독일인들이었다. 바이스 역시 오스트리아-헝가리 독일인이었던 아버지가 유대계로 아우슈비츠 이송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그는 파울 첼란처럼 전후 독일로 복귀를 시도하나 어려움을 겪는다. 1965년 10월 19일 『수사』 초연 이후 이들이 지나 바이스와 피스카토르는 “살아남은 유대인 쓰레기들”, “유대인 쓰레기, 빼도 못 추리게 될 거야”라는 욕설이 담긴 헐박편지를 받는다(Weiss 1982, 389).

을 확장한 이 극을 기점으로 전후 이십여 년을 지배한 독일사회의 위선적 평화는 종식되었다(Vgl. Weiler 2005, 6). 더 나아가 국가권위와 규율에 대한 복종을 최상의 규범으로 여기며 개인의 윤리적 성찰과 자유의지를 기꺼이 포기하는 독일인들 특유의 집단 의식과 행위패턴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비인격적 관료체제가 조직한 착취적 생명정치의 집행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직시할 것을 바이스의 극은 요구하였다. 바이스가 프리모 레비, 장 아메리, 프리츠 바우어, 라울 힐베르크, 한나 아렌트 등과 함께 홀로코스트에 대해 보편주의 윤리의 관점을 대변하고, 그 착취적 생명정치의 문학적 형상화를 시도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독일문학사의 성과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가해자 트라우마가 독일인들의 초세대적 윤리적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홀로코스트가 독일을 넘어 유럽 전체의 중요한 집단기억으로 인정되는(Vgl. Assmann 2006, 255) 놀라운 변화의 배경에는 페터 바이스의 『수사』와 같은 여러 선구적 기억투쟁이 있었다. 아우슈비츠재판과 아우슈비츠학살수용소에 대한 기념비적인 문화적 기억이 된 페터 바이스의 『수사』를 독일연방정부는 2008년 나치범죄에 대한 시민정치교육자료로 선정하였다.

바이스는 자신의 기록극이 브레히트의 학습극과 마찬가지로 제도권 연극의 상업적 무대가 아니라, “공장에서,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회합모임 공간에서”(Weiss 1980a, 103) 공연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관객들이 전지구적 착취 상황에 대해 방관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현실을 꿰뚫어보고 설명을 찾으며, 그 인식으로부터 정치적 결론을 도출하기를 원했다. 비록 작가가 대결했던 냉전의 세계정치구도는 사라졌지만, 21세기는 놀랍게도 새로운 전쟁의 시대와 함께 시작되었다. 민족분쟁이 유동하는 전선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테러가 세계 방방곡곡 선진국 사회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난민과 망명자들의 새로운 물결이 끊이지 않는 오늘날 국제법의 규범을 무시하는 새로운 전범자들이 크고 작은 수용소에서 착취적 생명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다른 한편 개인의 신체와 자유공간에 대한 국가의 디지털 관리와 감시는 자유주의 이념의 근간을 심각하게 의문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아감벤의 말을 빌리면, “전 세계의 새로운 생명정치적 노모스”(아감벤 2012, 332)이다. 바이스의 『수사』를 다시 읽어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다.

참고문헌

1차 문헌

- Weiss, Peter(1976): Die Ermittlung. Oratorium in 11 Gesängen. In: Weiss, Peter: Stücke I. Frankfurt a.M., 257-449.
- Weiss, Peter(1980a): Notizen zum dokumentarischen Theater. In: Rapporte 2, 2.Auf. Frankfurt a.M., 91-104.
- Weiss, Peter(1980b): Unter dem Hirseberg. In: Rapporte 2. Frankfurt a.M.. 2.Auf. 7-13.
- Weiss, Peter(1981): Meine Ortschaft. In: Rapporte. Frankfurt a.M. 2.Auf. 83-112.
- Weiss, Peter(1982): Notizbücher 1960-1971 1. Bd. Frankfurt a.M.
- Weiss, Peter(1965): Peter Weiss im Gespräch mit Hans Mayer. Kann sich die Bühne eine Auschwitz-Dokumentation leisten? In: Rector, Martin/Vogt, Jochen(Hrsg.)(1995): Peter Weiss Jahrbuch Bd.4. Opladen, 8-30.
- 바이스, 페터(2002):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황성근 역). 한국문화사.

2차 문헌

- 김희열(1994): 독일 기록극에 나타난 사회 역사 의식 - 피스카토르의 극작술과 호호후트, 킵하르트, 바이스의 작품을 중심으로. 독일문학 54, 232-280.
- 바우만, 지그문트(2015): 현대성과 홀로코스트(정일준 역). 새물결 초판 3쇄.
- 레비, 프리모(2017):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이소영 역). 돌베개 초판 6쇄.
- 레비, 프리모(2008): 이것이 인간인가(이현경 역). 돌베개 초판 8쇄.
- 뤼젠, 외른(2003): 홀로코스트 기억과 독일인의 정체성 - 세대적 실천의 세 가지 형식(최호근 역). 독일연구 6, 159-171.
- 아감벤, 조르조(2012):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문서고와 증인(정문영 역). 새물결.
- 아감벤, 조르조(2008): 호모 사케르. 주권권력과 벌거벗은 생명(박진우 역). 새물결.
- 아렌트, 한나(2006):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김선옥 역). 한길사.
- 아메리, 장(2012): 죄와 속죄의 저편. 정복당한 사람의 극복을 위한 시도(안미현 역). 도서출판 길.
- 이상복(2009): ‘팩션’으로서의 ‘기록극’ - 페터 바이스의 『수사』를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28, 291-294.
- 정향균(2000): 페터 바이스의 작품에 나타난 기록문학적 요소와 초현실주의적 요소의 기능에 관하여. 독일문학 76, 122-148.
- 허먼, 주디스(2007):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최현정 역). 플레닛.
- 힐베르크, 라울(2008): 홀로코스트. 유럽유대인의 파괴 1(김학이 역). 개마고원.

- Assmann, Aleida(2006): Der lange Schatten der Vergangenheit. Erinnerungskultur und Geschichtspolitik. München.
- Bettelsheim, Bruno(1960): The Informed Heart. New York The Free Press.
- Braun, Karlheinz(2016): Auf der Suche nach dem neuen Theater. Erfahrungen mit dem Theaterautor Peter Weiss. In: Der Wundbrand der Wachheit. Peter Weiss lesen, die horen 262(2016). Göttingen, 51-70.
- Chaumont, Jean-Michel(1994): Der Stellenwert der *Ermittlung* im Gedächtnis von Auschwitz. In: Heidelberger-Leonard, Irene(Hrsg.)(1994): Peter Weiss. Neue Fragen an alte Texte. Opladen 77-93.
- Didi-Huberman, Georges(2007): Bilder trotz allem. München.
- Das Ende des Schweigens. Der Frankfurter Auschwitz-Prozess 1963-65. (<http://www.hr-online.de/website/static/spezial/auschwitzprozess/popup.html>)
- Gerlach, Rainer(2005): Die Bedeutung des Suhrkamp Verlags für das Werk von Peter Weiss. St. Ingbert.
- Hochhuth, Rolf(1963): Der Stellvertreter. Reinbeck bei Hamburg.
- Hoffmann, Michael(2016): Peter Weiss' *Ermittlung* und das Gedächtnis der Schoah. In: Peter Weiss Jahrbuch(2016) Bd.25. St. Ingbert, 139-156.
- Jaggi, Maya(2001a): The Last Word. In: The Guardian, Dec. 21. 2001.
- Jaggi, Maya(2001b): Recovered Memories. In: The Guardian, Sep. 22. 2001.
- Kasch, Georg(2009): *Die Ermittlung* – Auf dem Reichstagsgelände öffnet Kathrin Mädler Räume für das Grauen, Spur der Steine. In: nachtkritik.de.
- Kelmann, Herbert C.(1973): Violence without Moral Restraint. In: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29, 29-61.
- Kontarsky, Matthias(2001): Trauma Auschwitz: zu Verarbeitung des Nichtverarbeitbaren bei Peter Weiss, Lulgi Nono und Paul Dessau. Saarbrücken.
- Kressin, Manuel(2015): Arbeit an *Die Ermittlung*, Theater&philharmonie Thüringen 2015. In: Der Wundbrand der Wachheit, a.a.O. 85-87.
- Müller, Filip(1979): Sonderbehandlung. Drei Jahre in den Krematorien und Gaskammern von Auschwitz. München.
- Pendas, Devin(2010): The Frankfurt Auschwitz Trial 1963-1965: Genocide, History, and the Limits of Law. Cambridge.
- Ruta, Christine(2014): Von Erinnerungskultur und Vergesslichkeit 24.05.2014. In: www.dw.com/de
- Salloch, Erika(1972): Peter Weiss' *Die Ermittlung*. Zur Struktur des Dokumentartheaters.

Frankfurt a.M.

- Schlott, René(2015): Vom Ende aller Gewissheiten – Auschwitz auf der Bühne, In: Zeitgeschichte-online, Oktober 2015: <http://zeitgeschichte-online.de/geschichtskultur/von-aller-gewissheiten-auschwitz-auf-der-buehne>
- Steitz, Kerstin(2017): Juristische und Epische Verfremdung. Fritz Bauers Kritik am Frankfurter Auschwitz-Prozess (1963-1965) und Peter Weiss' dramatische Prozessbearbeitung *Die Ermittlung. Oratorium in 11 Ges ngen* (1965). In: German Studies Review(2017), 70-101.
- Söllner, Alfons(1988): Peter Weiss und die Deutschen. Die Entstehung einer politischen Ästhetik wider die Verdrängung. Opladen.
- Takada, Midori(2016): Peter Weiss' Stück *Die Ermittlung* in der Erinnerungsgeschichte an den Holocaust. Marburg.
- Timm, Uwe(2003): Am Beispiel meines Bruders. Köln.
- Vogt, Jochen(2016): *Die Ermittlung* im Kontext. Eine Rückblickende. In: Der Wundbrand der Wachheit, a.a.O. 70-79.
- Vormweg, Heinrich(1981): Peter Weiss. München.
- Walser, Martin(1965): Unser Auschwitz. In: Kursbuch 1.
- Weiler, Christel(2005): Theater als öffentlicher Raum. Die Berliner Ermittlung von Jochen Gerz und Esther Chalev-Gerz, www.theaterderzeit.de.
- Wittmann, Rebeca(2005): Beyond Justice: The Auschwitz Trial. Cambridge.
- Young, James Edward(1992): Beschreiben des Holocaust. Darstellung und Folgen der Interpretation. Frankfurt a.M.

Zusammenfassung

Peter Weiss' Stück *Die Ermittlung* und die Erinnerungskultur der Deutschen

TAK Sun-Mi (Hanyang Univ.)

Peter Weiss' Stück *Die Ermittlung*, dessen Premiere auf 16 deutschen und internationalen Bühnen am 19. Okt. 1965 gleichzeitig stattfand, war der erste Versuch in

der deutschen Theatergeschichte, die Vernichtung der europäischen Juden durch die Nationalsozialisten auf die Bühne zu bringen. Das Stück war ein genuiner Beitrag zu den Debatten und Gedächtniskämpfen, die durch den Frankfurter Auschwitz-Prozess von 1963 bis 1965 in Gang gesetzt wurden. Mit diesem Stück, das zu einem wahren Medienereignis wurde, ist das über das Thema gelegte Tabu gebrochen und der scheinbaren Ruhe im Nachkriegsdeutschland der Adenauer-Ära ein Ende gesetzt worden. Mit der *Ermittlung* hat der Stückschreiber für die These der kollektiven Schuld den Anstoß gegeben: die Deutschen, die den Willen des Führers mit der Staatraison gleichstellend und der Obrigkeit gehorchend die von den Vorgesetzten gegebenen Befehle und Anordnungen zur Judenvertreibung und -vernichtung in sich verinnerlicht und mit bürokratischer Akribie willig vollgestreckt haben, seien des Massakers an den europäischen Juden mitschuldig. Peter Weiss schweigt auch nicht über die kuriose und unheimliche Verwicklung der Opfer mit der Vernichtungsmaschine des Lagers. Er beschreibt, wie sie schon bei der Ankunft in die von Primo Levi dargestellte Grauzone einzutreten beginnen und sich am Ende zu einem Nicht-Menschen, Muselman genannt, verwandeln. Mit der Hauptfigur Lili Tofler im 5. Gesang setzt Peter Weiss jedoch dem freien Willen des Opfers ein Denkmal: sie behauptet bei allen Gefahren und Entbehrungen ihr Recht auf die Sprache und Zeugenschaft, das ihr die Nazis noch durch die Liquidierung ihres Lebens nicht ganz wegnehmen konnten: Ihr Brief überlebt sie. Die Zeugin 5 lässt Peter Weiss vor dem Gericht darüber berichten.

Schlüsselbegriffe: Peter Weiss, Die Ermittlung, Auschwitz, Holocaust, Vergangenheitsbewältigung

필자 이메일 주소: smtak@hanyang.ac.kr

논문투고일: 2017.11.14 | 논문심사일: 2017.11.28 | 게재확정일: 2017.12.15

